현대불교 연중캠페인 **도난 문화재를 찾읍시다** 경찰청 후원

한국 도난문화재 38점 인터폴·FBI '화상수배'

국내 도난문화재 가운데 해외 유출 가능성이 있는 주요 문화재들이 인터폴과 미 연방수사국을 통해 국제적으로 수배된다.

이무영 경찰청장은 지난 5월 30일 조계종 총무원을 방문하고 '도난불교문화재 수사계획'을 전달했다. 경찰청 내 문화재 전문수사관 지정을 골자로 한 수사계획에서 이 청장은 주요 문화재와 고가 미술품에 대한 수배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밝혔다. 주요 문화재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 자료를 활용한다는 것이다.

경찰청이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이 데이터 베이스 작업은 미술품 경매회사인 마이아트와 문화재청의 도움을 받아 도난 문화재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 색인화한다. 여기에는 유물의 사진과 함께 도난일시 및 장소, 제작연도, 원소유자, 재질과 기법, 특징 등의 항목이 들어간다. 이와 함께 이 자료를 인터폴과 미 연방수사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난예술품 사이트와 연계하는 한편 영국 도난미술품 등록센터, 박물관 등 해외 유관기관과 연계해 전세계에 유출된 국내 문화재를 찾아낸다는 계획이다.

이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는 경찰청 마약지능계 김인옥 계장은 "지금 컨텐츠 구축작업을 마무리하고

경찰청 7월 사이트 개설 국제 협조체제 구축

있으며 미국 연방수사국, 인터폴과의 공조수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작업 전에 이미 문화재청의 도움을 받아 도난문화재 가운데 해외 수배가 필요한 문화재 11건 38점을 인터폴을 통해 국제적으로 수배해 놓은 상태다. 김 경정은 "인터폴뿐만 아니라 미 연방수사국 예술품 도난 사이트에 이들 문화재의 화상 정보를 올리기 위해 협의 중이다. 7월경에 이들 도난문화재의 화상정보가 전세계에 공개되면 국내 사이트도 함께 문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이 화상정보와 함께 국제적으로 수배할 11건 38점의 도난문화재 가운데는 송광사 16조사 진영 13점을 비롯해 불교문화재가 9건 34점을 차지한다.

△송광사 16조사 진영 13점= 조선 정조 4년(1780) 조성됐으며 보물 1043호로 지정돼 있다. 비단에 배접하여 채색한 것으로 1995년 1월 27일 진영이 봉안된 국사전 뒷면 흙벽을 뚫고 침입해 절취해 갔다. 16조사 진영 중 1세, 2세, 14세는 도난 당하지 않았다.

△옥천사 영산회상도= 경남 유형문화재 299호로 조선 영조 20년(1744) 조성됐다. 비단 위에 영산회상 장면을 원근감 있게 표현했다. 1997년 대웅전 정문의 문살 3곳을 파손한 뒤 경보음이 울리는 선을 자르고 침입했다.

△선암사 후불탱화 4점= 순천 선암사에서 도난당한 석가모니후불도(1765년, 대웅전)와 삼불회도(1700년경, 응진전) 칠불도(1702년, 불조전) 화엄경변

◇97년 도난당한 석남사 영산회상도.

◇도난당한 송광사 16조사 진영 13점 중 8세 조사(자각도영 · 왼쪽)와 5세 조사(원오천영)진영.

상도(1780년, 팔상전) 등 네 점으로 모두 비지정문화재다. 특히 화엄경변상도는 작품의 구도 및 색채, 선묘 등으로 볼 때 조선후기의 역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불갑사 나한상 8점= 1706년 조성된 것으로 16나한상 가운데 가락가 바리도아 존자상 등 8점. 모두 동물을 안고 있는 모습이며 문화재 지정가치가 높은 것들이다.

△정혜사 관세음보살좌상= 1699년 조성된 것으로 1992년 도난당했다. 비지정문화재지만 얼굴과 신체의 비례감이 이상적인 수작이다.

△신흥사 관음보살도 2점= 1874년 조성됐으며 비지정문화재다. 신흥사 대웅전에 봉안돼 있던 것으로 두 점 모두 흑탱인데, 한 분은 서 있는 모습이며 다른 한 분은 앉아 있다. 1997년 도난당했다.

△석남사 대웅전 탱화 2점= 울산 석남사 대웅전에 봉안돼 있던 영산회상도(1736년 조성)와 지장보살도(1800년 조성). 비지정문화재며 1997년에 12월 도난당했다.

△용연사 탱화 2점= 대구 용연사 극락전에 봉안됐던 삼장보살도(1744년)와 영산회상도(18세기 전기)로 각각 1993년과 1998년에 도난당했다. 둘 다 비지정문화재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직지심경' 세계기록유산 '후보'

27일 청주서 유네스코 등재 심사

세계 최고(最古) 금속활자본으로 현재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중인 〈직지심체요절〉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심사대상 후보에 올라 그 결과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는 27~29일 충북 청주시에서 제5차 회의를 열고 〈직지심체요절〉과 〈승정원 일기〉 등 22개국 39점의 문화재에 대해 세계기록유산 등재여부를 심의한다고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21일 밝혔다.

〈직지심체요절〉은 98년에도 청주시가 유네스코에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했으나 소유자(프랑스)와 신청자(한국)가 다르다는 이유로 접수가 보류돼 왔다. 당시 프랑스와 공동으로 신청하라는 유네스코의 권고에 따라 프랑스측과 협의했지만 프랑스가 동의하지 않자 신청을 강행해 이번에 심의 대상에 올렸다.

청주시의 〈직지심체요절〉 세계기록유산 등록업무를 맡았던 청주고인쇄박물관 측은 "금속인쇄술은 지난 세기 인류 최고의 발명품 중 하나로 꼽히는 것만큼 그 자체만으로도 세계기록유산 자격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각국의 기록물 전문가 14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심사는 비공개 토론으로 진행되며 최종 결과는 29일 나온다. 세계기록유산은 2년마다 열리는 국제자문위원회 회의에서 등재여부에 대한 실질적인 결정을 하고 특별한 단서조항이 없는 한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이를 확정 · 발표하게 된다. 1455년 경 인쇄돼 〈직지심체요절〉보다 78년 늦게 나온 금속활자본인 독일의 〈구텐베르크 성서〉도 이번에 심사대상 후보에 올랐다.

◇'직지심체요절'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심사대상 후보에 올랐다. 사진은 직지심경의 목판본(보물 1132호).

권형진 기자

'일제하 불교' 논문 잇단 발표

한동민 씨 '화엄사 본산 승격'
김순석 씨 '대한승려련 선언서'
최병헌 씨 '일제침략과 불교'

그 동안 역사학계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뤄졌던 근대 불교사를 다룬 논문들이 학술대회에서 잇달아 발표돼 관심을 끌고 있다.

15일 한국민족운동사학회(회장 서굉일)가 개최한 '한국 근대 민족운동과 종교' 학술발표회는 민족운동의 한 부분으로 불교를 다뤘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한동민 중앙대 강사는 '일제 강점기 화엄사의 본산승격운동' 주제발표에서 "화엄사 본산 승격운동은 일제의 사찰령 체제에서 30본산이라는 고정적 틀을 깨는 역할을 했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본산 중심적인 틀을 고정화시켰다는 점에서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 씨는 임제종 운동의 동지였던 김학산을 화엄사 승려들이 격렬하게 반대하면서 폭행, 치사케 한 사건은 일제가 의도한 대로 조선불교계가 분열된 채 본산 이기주의로 바뀌어 가는 과정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이에 비해 '불교계의 3 · 1운동과 대한승려연합회선언서'를 통해 불교계의 3 · 1운동에 관해 발표한 김순석 고려대 강사는 "불교계의 3 · 1운동 참여는 천도교나 기독교 세력에 비해 상대적 열세를 면치 못했고 교단지도부의 인식 또한 부정적이었으나 1919년 11월 중국 상해에서 대한승려연합회 이름으로 발표한 선언서는 불교계가 전개한 3 · 1운동의 의의가 결코 적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16일 '일제의 한국침략과 종교'를 다룬 한국사연구회(회장 최병헌) 학술회의에서는 불교를 앞세운 일제의 침략과 한국 불교계의 대응이 비판의 대상이 됐다. 최병헌 서울대 교수는 '일제의 침략과 불교' 주제 발표를 통해 "당시 한국 승려들은 일본 제국주의 세력의 정체나 일본불교의 본질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며 "당시 한국 승려 대부분이 사찰령과 본말사제 시행을 불교발전과 중흥의 계기로 인식했다는 것은 당시의 분위기를 단적으로 전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형진 기자

회암사 선각왕사비 복원 성공

회암사지 선각왕사비(보물 제387호)의 복원과정을 담은 보고서가 나왔다. 회암사지 선각왕사비는 97년 산불로 보호각이 불타면서 충격을 받아 100여 개의 크고 작은 조각으로 파괴됐다가 국립문화재연구소에 의해 최근 복원에 성공했다. 이번 보고서는 석조문화재가 화재로 파손됐다가 복원된 예가 없어 앞으로의 석조문화재 복원에 기본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에는 선각왕사비의 파손상태에 대한 현장조사에서부터 수습과정, 보존처리 내용을 담은 보고서와 함께 '선각왕사비의 암석학적 및 물리화학적 특성과 변화연구' '양식적 고찰' '나옹의 생애와 사상'을 실었다.

권형진 기자

日 인도불교학회 창립 50년 학술대회 국내학자 10명 참가

세계적 권위를 가진 일본 인도학불교학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아 29일부터 7월 1일까지 일본 도쿄대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 중국, 영국, 미국, 프랑스 등 세계 각국에서 250여명의 불교학자들이 참여해 다양한 주제의 논문을 발표한다. 10개 분과로 나눠 인도, 중국, 한국, 일본 등 각국의 불교를 집중적으로 발표하며 중관, 유식, 여래장, 정토 등 교학분야와 응용불교 분야까지 아우른다.

우리 나라 불교학자들의 참여도 두드러져 인도학불교학회 이사로 활동중인 동국대 불교대학장 보광 스님을 비롯해 10여 명이 참석한다.

학술대회와 함께 20일부터 7월 4일까지 도쿄대 종합도서관에서 열리는 도쿄대 소장 불교관계 귀중서전도 관심을 끌고 있다. 한국 인도 티베트 일본 중국의 경전 사본과 간본 등 귀중한 자료들이 전시된다. 29일 도쿄대학사료편찬소 2층 대회의실에서는 사료편찬소가 소장하고 있는 불교관계중요사료전시회가 2시간 30분 동안 한정적으로 열린다.

1951년 도쿄대 인도철학과에서 시작된 인도학불교학회는 전 세계 불교학자 40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권형진 기자

※ 기사 넘쳐 '고승 다시 보기' 쉽니다.

'마음 고운 禪房

불교방송 이후
오랜 침묵을 깨고
활동을 시작한 정목스님의
작고 고요한 공간

강남구 신사동 4거리
☎ 02) 548-0218, 0219
E-mail : maumgoyo@hanmail.net

3천 3백 3십 3배

(제 5회 철야 특별 기도 정진)
상근기도 못되면서 신심도 없으면서 자력수행 하는 것은
험난한 망망대해를 헤엄치며 건너려는 어리석은 짓과 같으니
3333배 금강의 배를 타고
9999회 감사의 노를 저어
제 7 말라야식인 에고의 업장을 깨버리고 행복으로 기쁨으로 환희심으로 가득한 대자유 부처님 참마음으로 가봅시다.

<절을 氣차게 잘하는 법>의 저자이며 절을 500만배 성만한 청견스님과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죽비소리에 맞춰 일괄적으로 하시게 됩니다.

◉ 저녁 7시~9시까지 2시간동안 호흡에 맞춰 절하는 비법을 2시간만 배우면 절대 숨차지 않고 헐떡대지 않으며 힘들지 않고 지치지 않습니다. 108배하는 기분으로 가볍게 3333배 정진에 도전하십시오. 7~80세 노인도 어린이도 끝까지 정진한 불자가 많으며 설악산 봉정암을 하루 한번에 갔다올 수 있는 힘이 누구나 생깁니다.

※ 가슴이 열리고 단전히 뚫리고 수승화강이 저절로 되는 신비로운 기적 같은 체험을 하시게 됩니다.

■일 시 2001. 6. 30 토요일 저녁 9시 ~일요일 아침 7시
■준 비 물 공양미, 기도포, 세면도구

백만불자 108배 만일결사 금강지혜보궁 불사도량 법왕정사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석산리 소리산 참선캠프
문의전화 031)771-7745 · 6736 (Fax겸용)
⊙ 서울 상봉터미널 ➔ 모곡행 ➔ 모곡종점 하차 전화 요
수행전문사이트 http://cafe.daum.net/sorisan/

[국비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수강생

과정(대상)	프로그램명	개강일(인원)	교육일시	수강료	교육내용
사업주위탁 훈련과정 (고용보험 적용사업장 재직자)	케어복지사 2급 교육과정	7. 9(월) (각 50명)	월, 수, 금 오전10:00~12:30 오후 7:00~9:30	총 4개월 (월 수강료 10만원, 교재비포함) ※회원가입비 20,000원별도	사회복지개론, 장애인복지론, 사회복지실천기술, 케어기술, 노인복지론, 케어복지개론, 작업치료, 정신건강, 기본간호, 상담심리, 임종케어, 응급처치론, 치매노인케어실무영양학, 등
일반교육 (수강료 본인부담)	병원친절 코디네이터	7. 10(화) (40명)	매주 화요일 오후 7:00~9:00	총 2개월 (월 수강료 7만원)	인사예절, 의료인의 이미지 메이킹, 대화예절, 음바론언어사용, 전화예절 등
	발건강 관리사 (foot health care)	7. 9(월) (각 50명)	매주 월, 목 오전10:00~12:30 오후 7:00~9:30	총 3개월 (월 수강료 10만원)	발 건강교실의 개론과 역사(history), 리플렉스(reflex)와 발반사구, 음양오행의 원리(-기호닐아합-), 순환의 원리, 여론 발톱관리 페디큐어 등
	카운슬러 기본	7. 11(수) (40명)	매주 수, 금 오후 7:00~9:30	3개월 : 45만원 (2회분납 가능)	심리학개론, 사회심리, 성격심리, 발달심리, 상담심리, 사회심리, 상담기법, 정신위생, 심리검사, 상담실습, 감수성훈련이론 등
	카운슬러 전문	8월 개강 예정	미 정	3개월 : 45만원 (2회분납 가능)	

■ 수강신청안내
1. 특전
ㅎ 케어복지사 2급과정 : · 사단법인 인증 케어복지사 아카데미 수료증 수여
· 한국케어복지협회인증 케어복지사 2급 시험 응시자격 부여
· 자격시험 합격자는 실습 40시간 완료후 자격증 발급
· 본원 출신 케어복지사 자격증소지자 전문직취업 적극추천
서울지방노동청으로부터 재직자훈련과정을 위탁 받아 고용보험에 가입한 재직자는 수강료의 80%정도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ㅎ 병원친절코디네이터: · 수강생중 강의 희망자는 평가에 의하여 강의할 수 있음
· 수강일정은 토요일 오후로 변경 가능 함
ㅎ 발건강관리사(foot health care): 발건강관리사 자격증 수여 (한독민간자격협회)
〈중국연수계획〉 ※ 중국위생부 예방의학회 고시합격과 동시 졸(결)업증 취득수강생중
ㅎ 카운슬러 (기본 · 전문): · 법인 공인 카운슬러 자격증 수여
2. 교 육 장 소 -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120-3 한독중앙빌딩 5층 (지하철 / 종각역 1번 출구, 한일관 옆)
3. 문 의 사 항 ☎ : (02) 733 - 7731, 7732 / 팩스 : (02) 733- 7736

사단법인 한국인간교육원

지리산 자락 신비의 참 다슬기 농축액!
당신의 간 걱정되시죠?
(간염, 지방간, 간경화, 간질환)...

토종 옹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됨」

◎ 다슬기 농축액 : 지리산 자락 무주 구천동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자료신청 : 055) 963-9583 상담문의 : 055) 355-5626
전국무료전화 : 080-521-6666